

광주 상무지구 대체열원사업 성공하나

시, 내달까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공개모집 세 차례 불발...하반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광주시에 상무지구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재추진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23일 상무지구에너지 열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는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활용해 상무지구 27개 기관과 정촌동 11아파트 1개 단지(820가구) 등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소각장이 지난해 말 폐쇄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중단. 냉·난방 에너지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특히 당장 1월부터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질

로 사업자는 연간 10만Gcal의 열원을 생산해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판매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20년으로 이후 민간업체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민간업체 제안서는 3월 24일까지 발송 예정인데,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700여원에 달하는 초대형 초기 자본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시는 소각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2013년부터 대체 열원 공급 방안을 찾아왔으며, 이중 연료전지 발전사업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왔다.

이에 따라 3년 간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잇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았지만 비용분석 결과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세 차례

나뉘어왔다.

반면 이번에 또 다시 사업이 불발된다면 더 이상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경우 하반기부터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시는 당초 40MW/10만톤 발전규모를 크게 줄인 대안으로 재보안인 도시가스 보급 인허, 급유설비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참여 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하도록 하겠다"면서 "과거 실패했던 경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vitz@gwangnam.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26일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안과진료 봉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네팔-광주, 인간존엄의 가치 나누다

광주진료소 공식 개소...윤장현 시장, 안과진료 참여

25일(현지시간) 오후 네팔 파르파트인 디무와 마을에 위치한 네팔 광주진료소.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현을 위해 이날 개소한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광주 의료진들이 오랜 시간 출퇴근 기다리던 환자들을 만났다.

의료진에는 윤장현 광주시장도 포함돼 안과진료를 맡았다. 윤 시장은 2015년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에 이어 2년 만에 기업을 일고 안과진료에 나섰다.

광주진료소에는 이날 백내장, 노인, 시교 후유증 등 다양한 환자들이 안과를 찾았고 세 시장은 정성껏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처방을 내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도 늘어난다. 윤 시장은 일정을 조율해 26일까지 진료소에 머물며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9만명 정도가 모여 살아가는 빈곤한 네팔

이곳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응급환자도 광주진료소였다. 개소식이 끝나고도 저녁 광주국제협력단 사제인 원장은 손가락 끝집혈액 수치를 선진적으로 진행했다.

광주진료소 개소 첫날인 이날 안과, 외과, 치과, 내과, 한방 등 의료진은 총 180여명의 현지 환자를 진료했다.

네팔 광주진료소는 캄보디아에 이어 광주정신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거점이었다. 네팔 현지 대 김금주총괄장을 펼친 것이 연이어 돼 광주진료소 개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우리는 도움을 드려온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광주국제협력단 최동서 이사장은 "광주

에서 네팔 디무와 마을까지 17시간이 걸리는 데도 오직 사람을 위해 달려온 이들이 바로 광주시민이다"면서 "위대한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인들도 광주진료소에 가는 기쁨이다. 광주진료소가 자리한 디무와 마을은 이날 축제 분위기였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진료소까지 500m 거리에 온 시장 행렬을 맞이하려 나온 주민들이 길게 줄을 이룬 '미미스데'를 외치며 환영인사를 건넸다.

이날 네팔 광주진료소 의외로, 김진중 의원은 행사 후 디무와 마을개발위원회와 건담회를 열고 광우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시장 직원들이 모은 하품통 및 운동용품, 의류, 가방 등 기증품들은 디무와 마을 11개 초등학교로 전달됐다.

정문경 기자 vitz@gwangnam.co.kr

남도 섬 '요트 관광시대' 성큼

전남도, 해양관광 워크숍...마리나관광 논의

전남 섬 요트 관광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해양수산부, 도, 시·군, 마리나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계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해양레저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수부의 '마리나청년 개발사업 발전전략'과 '해양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시·군별 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준비 상황 등을 듣고 종합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3월 중 '비탈마리나'를 개장할 예정이고, '광양 마리나'는 기본계획 수립 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 '여수 흥천지구(II)'는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여수 흥천지구'는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박정열 기자 hobul@gwangnam.co.kr

요트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부-원도-보성-여수를 잇는 '요트마린 실�크로드'를 통해 보석 같은 다도해의 절경을 요트에서 즐기는 여행상품 출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전남도가 마리나,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섬, 해안선, 갯벌 등 비교유위 자원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요트 마니아들에게 최상의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종현 해양정책관은 "마리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아 미래 대가리 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2025년까지 23개 요트의 마리나 기반을 조성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광주시 일가정양립본부 운영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운영한다.

기업·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이번 교육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교육', '부부·부모' 교육 방법, 같은 해결을 위한 '부부·부모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기업·기관에 따라 수강료가 무료로 결의를 맡는다.

교육 대상은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이다. 참여 희망 기업·기관은 28일부터 교육 주제, 일정,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정문경 기자 vitz@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토리 랩' 성과발표

전남지역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 역량이 개발됐다.

26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목포벤처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남 스토리 랩'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 스토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토리 창작팀과 기자단, 콘텐츠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스토리 랩 우수 성과발표, 사업과 지원 작품 결과물 발표, 우수기자단 사례발표 및 수료식, 우수 스토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에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지역 스토리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과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엮어 있으며, 이 중 우수 스토리로 선정된 4작품이 파일럿 콘텐츠로 제작된다.

오장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성과와 담당들이 창작자들을 통해 재탄생되면서 대중에게 친숙해지고 있다"며 "전남이 스토리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bul@gwangnam.co.kr

전남도, 농업생산기반 정비 3070억원 투입

수리시설 개보수 등 17개 사업

전남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3070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에는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물의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집행된 건설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에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재해 및 영농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10억원,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460억원, 추진단지 및 집단화면 개발의 우수 개발, 농로 개선을 위한 발전배전사업 347억원 등이다.

또 노후 제방과 배수검문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기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74억원, 일반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등 필지별 면적을 대량화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다구위 경지정

리사업 200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30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재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은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 재해에 대비하고,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시·군, 지역 국회의원회 협력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시·군 및 민간어촌공사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직접 사업회의'를 개최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부실사업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bul@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이민준 도의원 발의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준 도의원(나주·사천)이 대표 발의

한 '전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 정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기관들은 사업발굴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출자 또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열 기자 hobul@gwangnam.co.kr

내세워 드림 창업투자/개업지원/특수기술개발지원/NC인증사업/한인기업/새마을기업/신사업

B2C 02-7089-7777 / B2B 02-7089-7778 / 02-7089-7779 / 02-7089-7780 / 02-7089-7781 / 02-7089-7782 / 02-7089-7783 / 02-7089-7784 / 02-7089-7785 / 02-7089-7786 / 02-7089-7787 / 02-7089-7788 / 02-7089-7789 / 02-7089-7790 / 02-7089-7791 / 02-7089-7792 / 02-7089-7793 / 02-7089-7794 / 02-7089-7795 / 02-7089-7796 / 02-7089-7797 / 02-7089-7798 / 02-7089-7799 / 02-7089-7800

투자자모집

그린마더

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제품이 인증된 감지하고 말리지 않으며 음식물이 마음처럼 사라지는 **친한 경우식분소**입니다.

환경부인증

[제 2013-86]

녹색기술인증

[G1-4-0057] 환경부정규

녹색기술제품확인

[G1-4-0087] 환경부정규

투자자모집

1인 창업부터 10인 창업까지

대표이사 **신행순**

Green Mother 02-7089-7777 / 02-7089-7778 / 02-7089-7779 / 02-7089-7780 / 02-7089-7781 / 02-7089-7782 / 02-7089-7783 / 02-7089-7784 / 02-7089-7785 / 02-7089-7786 / 02-7089-7787 / 02-7089-7788 / 02-7089-7789 / 02-7089-7790 / 02-7089-7791 / 02-7089-7792 / 02-7089-7793 / 02-7089-7794 / 02-7089-7795 / 02-7089-7796 / 02-7089-7797 / 02-7089-7798 / 02-7089-7799 / 02-7089-7800

www.green-mother.co.kr

02-7089-7777 / 02-7089-7778 / 02-7089-7779 / 02-7089-7780 / 02-7089-7781 / 02-7089-7782 / 02-7089-7783 / 02-7089-7784 / 02-7089-7785 / 02-7089-7786 / 02-7089-7787 / 02-7089-7788 / 02-7089-7789 / 02-7089-7790 / 02-7089-7791 / 02-7089-7792 / 02-7089-7793 / 02-7089-7794 / 02-7089-7795 / 02-7089-7796 / 02-7089-7797 / 02-7089-7798 / 02-7089-7799 / 02-7089-7800